

## Martin Luther의 宗教改革 思想研究

- 95개조 論題를 中心으로 -

A study of M.Luther's Reformation Thought

- Attaching importance to 95 theses -

김 호 현 \*

### Abstract

From Luther's day to the present, October 31, 1517 has been considered the birthday of the Reformation. At noon on this Eve of all Saints' Day, Luther nailed on the Castle Church door, which served as a bulletin board for faculty and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Wittenberg, his ninety-five theses, as his disputation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 has commonly been called.

In the Ninety-five theses Luther applied his evangelical theology to indulgences. He hoped thereby to find an answer to a practical problem which had disturbed him and other sincere Christian for a long time. As a pastor he had noted the bad effects of indulgences upon the members of his own congregation, many of whom were going to nearby Jüter bog and Zerbst in Brandenburg to buy indulgence slips from Johan Tetzel. This practical question raised for him a deeper one, the question of their efficacy.

---

\* 신학과 교수.

He did not as yet deny the validity of indulgences or the sacrament of penance out of which they had grown. He did not even mention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se theses, although the implications of that doctrine are present and were not lost upon his enemies. But be due to his ninety-five theses, the Reformation came into the world.

The important points of the ninety-five theses are three points. One is the repentance and the salvation, thesis 1. When 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said, 'Repent'(Matt. 4:17), he willed the entire life of believers to be one of repentance, thesis 36. Any truly repentant Christian has a right to full remission of penalty and guilt, even without indulgence letters, thesis 37. Any true Christian, whether living as dead, participates in all the blessings of Christ and the Church : and this is granted him by God, even indulgence letters. Other is the pope's authority or that of the canon, thesis 5. The pope neither desire nor is able to remit any penalties except those imposed by his authority or that of the canon, thesis 6. The pope can not remit any guilt, except by declaring and showing that it has been remitted by God: or to be sure, by remitting guilt in cases reserved to his judgement. If his right to grant remission in these case were disregarded, the guilt would certainly remain unforgiven, thesis 22. As of matter of fact, the pope remits soul is purgatory no penalty which, according to canon law, they should have paid in his life.

The third is the indulgence, thesis 53. They are enemies of Christ and the pope who forbid altogether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n some churches in order that indulgences may be preached in others, thesis 54. Injury is done the word of God when, in the same sermon, an equal or larger amount of time is devoted to indulgences than to the Word, theses 62. The true treasure of the church is the most holy gospel of the glory and grace of God.

Since M. Luter's Reformation, the protestant Churches have been reformed, also Korean churches have been reformed during one hundred

and ten years. Now Korean churches have to reformed. I expect that this treatise will be contribute toward the reformation of Korean Churches.

## I. 서 론

1백 40년 전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1855년)는 그가 죽기 직전 당시 조국의 종교적 상황을 개탄하면서 “기독교권에 대한 공격”이란 제하의 글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 루터여, 당신은 기가 막히게도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95개 조항이나 필요로 했었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새겨 본다면 더 많은 조항을 필요로 할수록 그 상황은 더 절망적인 것이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 보다 훨씬 더욱 절망적인 바, 여기엔 오직 한 가지 조항, 즉 신약적 의미의 기독교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할 조항만이 필요할 따름이오.」<sup>1)</sup> 키에르케고르는 당시 덴마크의 천주교회가 신약의 기독교론을 무시한 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루터에게 탄식한 일성이었다. 루터는 95개조 이의를 발표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수백 개의 이의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C. M. Jacobs은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영어로 번역한 서두에서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원년으로 기념하고 있다. 루터가 비텐버그 성 교회 문에다 그의 95개조 논제를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토론하고자 내걸었다. 그것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쟁은 1517년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다.」<sup>2)</sup> 이 말은 478년동안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종교개혁에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고영근 목사는 그의 저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선교적 과제」에서 서문에 「이제 한국교회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1,300만 신도 모두가 루터가 되어 뼈를 깎는 반성과 회개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태어나서 이 시대가 요청

1) 이상훈, “오늘에 듣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기독교사상』 1993. 10월호. P.68.

2) C. M. Jacobs, *Luther's Ninety-Five Thes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7), P.1.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선교 100주년을 넘어신 한국 교회는 1,300만 신도와 35,000교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역사와 사회에 2%의 영향력을 끼칠까 말까하는 처지에 있다. 우리 사회는 범죄와 부조리로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sup>3)</sup> 고영근 목사는 이상과 같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면서 '종교개혁 53개 조목'을 제창하였다.

16세기의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은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서 깊은 각성과 개혁을 야기함으로써 서양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개혁운동은 장구한 기간에 전래하여 온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조직과 교리의 개혁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정신사를 개혁한 힘찬 정신운동이었다. 이것은 중세의 암흑세계에 대한 광명운동으로써 인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신운동 가운데 루터의 신학사상은 개신교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근본적 요인은 그의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려는 염원이며, 순수한 교리로의 혁신을 도모했던 것이다.<sup>4)</sup>

중세기독교, 특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이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교황권의 몰락을 촉진시켰던 요인들로는 국가주의의 대두와 스콜라 철학의 붕괴를 들 수 있으며, 개혁운동의 추진력을 제공한 적극적 요인으로는 중세 말의 신비주의 및 종교적 경건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주의의 성서 연구를 들 수 있다.

루터의 신학은 Incarnation(신의 인간화)이 그 기본 사상이다.<sup>5)</sup> 그 신은 자비의 신이었다. 신이 인간에게 자비의 신성을 계시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이 역사 속에 강림하였다. 그가 Jesus Christ이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신 자신으로서 인간에게 모범적 교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 고자 한다.

M. Luther는 초기에 있어서 신의 의를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징벌의 의로 알았으나 로마서 1:17(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에 감동되어 의 개념이 전환되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 온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용서하는 '사랑의

3) 고영근, 한국교회 갱신과 선교적 과제, (서울: 혜선출판사, 1991), P.3.

4) M. 루터, 탁상담화, 지원용역 (서울: 진콜디아사, 1963), P.243.

5)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진콜디아사, 1982), P.161. 요한 1:14, 갈 4:4, 빌 2:6-7.

의' 입을 깨달았다. 따라서 인간은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6) 루터의 신학사상은 '십자가 신학(the theology of cross)'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워 주시며 의롭게 된 새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고통의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7)

루터는 결코 면죄부(Indulgence)에 의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 사상과 십자가의 의미로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더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교황 Leo X에 의해 선포되고 마인츠의 대주교 Albrecht에 의해 장려되고 면죄부 판매를 위탁받은 Tetzel에 의해 설교된 Indulgence(면죄부)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8)

논제 제1에 「우리들의 주와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지상에 있는 신자의 전 생애가 끊임없는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hen 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said, 'Repent'(Mtt 4:17), he willed the entire life of believers to be one of repentance).

제22조에 「교황의 권한도 이 세상에서 행사되는 것이지 연옥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징벌도 사할 수 없다.」(As of matter of fact, the pope remits souls in purgatory no penalty which, according to canon law, they should have paid in this life).

제32조에 「면죄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Those who believe that they can be certain of their salvation because they have indulgence letters will be eternally damned, together with their teachers). 9)

루터는 이와 같이 그의 신앙과 사상에 따라 교황권과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하여 개혁을 외쳤던 것이다.

6) P. S. 왓슨,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An interpretation of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장식 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3), P.37.

7) Alister E.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Oxford : Ba Blackwell, 1985), P.161. 시편 22 : 1-31. 마태 27 : 46. 하나님의 버림과 십자가의 고통 루터는 시편과 마태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

8) T. M. Lindsay,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 I.* (Edinburgh : T & T. Clark, 1953), P.198.

9) C. M. Jacobs, *Luther's Ninety-five theses* 참조.

루터가 478년 전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건설한 것처럼 오늘에 그의 95개조 논제의 사상을 재 해석하여 한국 교회 갱신에 공헌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M. 루터의 시대적 배경

루터 당시 신성 로마 제국(Holy Roman Empire)은 17세기에 들어 '유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락하였으며 국가의 기능이 상실하였다.<sup>10)</sup>

15,16세기를 통하여 독일의 신성 로마제국은 다른 서부 유럽이 걸었던 행로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강력한 전제군주들 하에 들어갔을 때 독일에서는 오히려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반면 봉건제도는 쇠퇴함으로써 사회 불만이 표출 되었으며 황제의 위치는 약화돼 갔다.<sup>11)</sup>

1521년 제국 기록부를 보면 85개 가량의 도시들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65개 도시가 제국 직할로 되어 있었다. 이 도시들은 명목상의 시의회와 시장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으나 이들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인물들은 소수의 부유한 상인들이었으며 소규모의 길드(guild)들이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다.<sup>12)</sup> 돈이 지배하는 도시는 타락하고 타락한 도시는 향락에 빠지는 것이다.

농민들은 각종 과중한 세금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속박과 제한을 당하게 되므로 불만이 많이 쌓였다. 도시 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의 신세가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이 즈음에 「분트슈호(Bundschuh)」라는 '농부비밀혁명 결사대'가 조직되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sup>13)</sup>

10) L. W. 스피츠, 종교개혁사,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40.

11) Ibid., P.41.

12) Ibid., P.42.

13) Ibid., P.43.

로마 교황은 교회와 국가의 지배자로서 국제 정치와 세속 생활까지 관여하여 독일에서 많은 재화를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거(Fugger)<sup>14)</sup>시대를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승한 농민층의 힘은 현실의 봉건적, 상업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 반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아래서 16세기 초두에 「함스부르크」가의 칼 V세가 거대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었다.(1521)

독일의 각 사회계층은 로마 교황청과 각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병기를 구입하고, 용병을 고용하고 제련소 유지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영주들은 교회 재산과 수입, 그리고 이탈리아로 빠져 나가는 막대한 제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sup>15)</sup> 독일 내에 있는 성당 건물들이 퇴락해 가는 이 마당에 왜 독일의 황금으로 로마의 교회당을 건축하는가를 따지기 시작했다. 빈곤한 농부들은 비단옷을 입고 있는 고위 성직자들을 증오했다. 노동자 농민들은 교회를 봉건제도 하에서의 착취계급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M. Luther는 그의 저서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과연 왜 우리 독일인들은 교황의 손이 우리의 재산을 착취하고 강탈해 가는 것을 보고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프랑스 왕국은 이러한 작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바보같이 당해야만 하는가? 그러고도 우리는 왜 우리들의 영주들과, 귀족의 도시들과 그 재정, 나라와 국민들이 더욱더 궁핍해 지고 있나 의아해하고 있다. 우리는 차라리 아직 먹을 것이나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sup>16)</sup>」 또 루터는 95개조 논제중 86조에 「가장 부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지닌 교황이 왜 가난한 신도의 돈보다는 먼저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지를 않는가?」

이 내용들은 교권과 정권의 횡포를 규탄하며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한 의침이었다.

독일의 인문주의자 울리히 폰 훗텐(Ulich Von Hutten, 1488-1523)은 교황권을 신랄하게 논박하는 한편 황제를 머리로 하는 대 독일제국의 실현을 꿈꾸면서 독일 국민의 의식을 높이 불러 일으켰다.<sup>17)</sup>

14) 지원상, M.루터, (서울:유풍출판사, 1980), P.314. 푸거는 독일의 상업도시를 주름잡던 대상인이다. 푸거가의 막내 아들 야콥(Jacob, 1459-1525)때 황제 맥시밀리안 1세, 칼 V를 비롯하여 교황과 제후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

15) L. W. 스피츠, P.44.

16) M. 루터,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지원용 역 (서울:전콜디아사, 1982), P.45.

그는 루터의 파면 소문을 듣고 루터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파면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sup>18)</sup>고 하였다. 그는 문무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제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었다.

1524년 독일 남부에서 발생한 농민전쟁도 종교개혁에 증대한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 정치적 압제에 대항하여 싸운 농민들 자신의 새로운 자기 의식에서 발생한 전쟁이었다.<sup>19)</sup> 농민들이 내걸은 12가지 요구에는 바람직한 새 질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들이 나타나 있다. 12가지 조문에서 몇 가지만 제시한다.<sup>20)</sup> ① 개교회에서 그의 목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할 것. ② 여러 가지 사소한 헌금을 폐지할 것. ③ 만인이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되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 ④ 강제 노동을 제한시킬 것. ⑤ 사형제도를 철폐할 것. ⑥ 빼앗은 토지를 반환할 것. ⑦ 이 모든 조건들은 성경에 의하여 그 진위가 판명되어야 하며 만일 성경과 합치되지 않았다면 그 조건들은 철회될 것 등이었다.

이 정신은 인문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으며 종교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은 북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천적 신비주의 운동과 이탈리아 휴머니즘 운동이 접촉하여 새로 파생된 북 유럽의 독특한 정신운동이었다. 이 사상은 중세 로마 교회에 의해서 오랫동안 속박되어 온 인간성의 억압에 대한 반발에서 싹튼 것이다.<sup>21)</sup>

인문주의자들은 루터의 사상을 이해하였던 아니했던 간에 그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후원 그룹이었다.

인문주의가 중세 교회와 스콜라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교황권과 스콜라 신학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인간 본성의 선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했던 인문주의자들은 낙천적인 인생관을 표명했으며, 고전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23)</sup> 인

17)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0), P.262.

18) L. W. 스피츠, 종교개혁사, P.77.

19) H. 킬트너, "루터와 농민전쟁", 지원용 편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P.239.

20) Ibid., P.246.

21)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3), P.55.

22) 김명혁,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지남』, 1977, 제44권, 1호, P.108.

23) Ibid., P.109.



문주의자들은 중세 교회의 모순과 부도덕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풍자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고전에 대한 문헌 비판은 교황의 권위를 떨어지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루터는 비성경적 비도덕적 비이성적 모든 가치관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도전한 것이다. 당시 사회적 환경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불을 붙이게 하였던 것이다.

## 2. 연 옥

### (1) 성경의 교훈

연옥에 관한 교리나 구절은 성경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는 연옥교리(현행 카톨릭의 교리)에 미혹될 만한 내용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는 명백하게 영생과 심판을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sup>24)</sup>」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에 의해서 이미 소유되었다. 따라서 그 영혼에 관해서 어떠한 정죄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십자가상의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sup>25)</sup>」 이 말씀은 그 강도가 죽는 즉시 천국에 가리라는 말씀이다. 「다 이루었다<sup>26)</sup>」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신 최후에 하신 말씀은 그가 오셔서 이루려던 구속의 역사가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사후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일은 결코 없다. 즉 카톨릭 교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기 전 고행하는 연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sup>27)</sup>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희생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sup>28)</sup>」 거기에는 사제에 대한 고백, 고해성사, 연옥, 혹은 구제행위가 중시되는 교리 따위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

24) 요한복음 5 : 24

25) 누가복음 23 : 43

26) 요한복음 19 : 30

27) 요일 1 : 7

28) 행 16 : 31

로 인도하려 하심이라<sup>29)</sup>,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위하여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연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설피게 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충분히 만족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한번 벌하시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를 벌하시는 이런 반복된 형벌은 주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영혼은 지상과 천국사이의 어느 중간영역(연옥)에 가지 않고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 (2) 카톨릭의 연옥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함께 평화롭게 죽었으나 완전치 못한 모든 자들은 연옥으로 알려진 중간 영역에서 형벌에 상당하고 정결케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반전시켜 왔다.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에 도달한 신자들만이 즉시 천국에 간다. 세례 받지 않았거나 세례 받은 후일지라도 대죄를 범한 모든 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 교회와의 교제 가운데서 죽어서 부분적으로 정결함을 받았으나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연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죄가 일소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sup>30)</sup>

연옥 교리는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반면에 그의 공의는 죄인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전에 그의 죄에 해당하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카톨릭 교도들은 그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불꽃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조차도 그의 공의가 만족할 때까지는 그들을 도울 수 없고 단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만이 그 고통을 짧게 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배운다. 연옥은 교황의 특별한 관할하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교황이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사면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교황의 특권이다.<sup>31)</sup>

### (3) 연옥의 고통

연옥의 고통은 매우 혹독하고 금생의 어떤 고통을 능가한다. 교회의 성 교부들에 따르면 연옥의 불꽃은 지속성을 제외하고는 지옥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지옥에서 버

29) 뱌전 3:18

30) L. 뵈트너, 로마카톨릭사상평가, (Roman Catholicism), 이송훈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303.

31) Ibid., P.304.

림 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불은 연옥에서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불과 같은 불이다. 연옥에서 가장 적은 고통도 금생의 최대 고통을 능가한다. 지옥의 불꽃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연옥의 불꽃은 개인마다 시간적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옥의 고통은 끝이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다.<sup>32)</sup>

로마 카톨릭은 가끔 공포의 종교로서 묘사된다. 연옥의 교리는 그러한 공포를 가장 많이 모아 놓은 것이다. 거기에는 사제에 대한 것, 고해제도, 진노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관한 두려움 등이 있다.

보통 연옥에서의 고통 당하는 기간은 헌금과 사제의 기도 그리고 미사로 단축할 수 있는데 이 헌금과 기도와 미사는 죽기 전에 본인에 의해서 드러질 수도 있고, 죽은 후에 친지들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드러질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연옥에서 속죄되어야 할 것이 더 적게 된다.<sup>33)</sup>

카톨릭의 연옥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이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에 위배되는 악한 교리이다. 구원 받은 영혼들은 연옥의 고통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 그의 공로로 천국에 들게 되는 것이다.

### 3. 면죄와 면죄부

#### (1) 면 죄

면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면죄란 죄에 합당한 일시적 형벌을 전체적으로나 혹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대사와 소사가 있다. 대사란 죄에 합당한 일시적 형벌의 충분한 면제를 말하고 소사란 죄에 합당한 형벌의 일부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상태(사제에게 만족스럽게 고해한 결과)에 있어야 하고 부과된 행위를 행해야 한다.」<sup>34)</sup> 간단히 말하면 죄를 용서 받은 후에라도 금생에서나 연옥에서 당해야 하는 일시적 형벌의 면제인 것이다.

면죄는 교황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로마 교회는 바로 이 교황이 연옥에 대해서 개인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 면죄(사면)는 보통 사제를 통해서 교회에 드린 예물이나 봉사 혹은 선행에 대한 답례를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성인들의 선행 때문에 그 공적이 교회 안에 축적된다. 교회는 그 보고(보물창고)

32) Ibid., P.306

33) Ibid., P.308.

34) Ibid., P.361.

에서 공적을 꺼내서 교회의 어떤 회원이 죄를 용서받기에 필요한 것을 고통 당했거나 한 것처럼 그것들을 적용시킨다.<sup>35)</sup>

오직 교황만이 모든 고통을 취소하고 대사(大赦)를 베풀 수 있다. 주교는 40일까지 줄 수 있고, 사제는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사면을 줄 수 있다.

## (2) 면죄부(Indulgence)

면죄부는 오랜 교회사 속에서 논란이 되어왔으며, 교리상으로 지탄을 받아온 복잡한 사건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면죄부의 개념 정리를 위해서 동서문화사에서 91년에 발행한 세계대백과사전에서 밝힌 정의를 제시한다.

「중세 유럽에서 신에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의 벌을 면제한다는 명목으로 로마 교황청이 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한 부표(符表)이다.

로마교회에서는 원래부터 헌금을 받고 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십자군 시대 이후 헌금자는 죄가 면제된다는 미신이 더욱 크게 세력을 떨쳤으며 이렇게 하여 얻은 신자의 헌금은 로마교회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sixtus IV) 4세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입의 부족을 면죄부의 판매로서 보충하려는 악습은 더욱 심화되어, 레오십세(Leo X)는 재정보충을 위하여 대규모적 판매를 개시하였다. 독일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Albrecht)가 그 판매를 담당하여 도미니크회의 수도사 J. 테젤을 시켜서 팔게 하였다. 이는 1517년 M.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논제를 로마교황에게 제출하여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sup>36)</sup>

이 정의로 본다면 면죄부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죄권을 팔아먹은 부패한 세속적 행위였다. 이 행위는 이미 교리를 떠난 일부 몰지각한 교회지도자들의 세속적 물질 욕망의 죄과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교황 식스투스 4세(1471-1481)는 본래 청빈을 표방하는 프랑치스코회 출신이었으나 교황이 되자 수도정신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토건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는 학문과 예술에 관심을 갖고 바티칸 내에 도서관을 장려하였으며 벽화를 그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등용하였으며 조카를 추기경에 임명하는 등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플로렌스와 베네치아와 전쟁을 일으켜 전비를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며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케 하였다.<sup>37)</sup> 그리고 교황 레오10세는

35) Ibid., P.362.

36) 고정일, 「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 동서문화사, 1991.

1516년 프랑스 왕 프랑소와1세와 협약을 맺고 주교의 선거권을 참사회에서 빼앗아 이를 국왕에게 맡기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권한은 교황에게 두었다. 주교신임 때의 비용을 교황에게 바칠 것과 로마의 상고권을 승인케 하였다. 레오10세 역시 교회의 혁신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문예에만 관심이 있었다. 교황청 재원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케 하였으나 루터의 반발에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sup>38)</sup>

R. 베인톤은 자기 저서에서 교황 레오10세를 다음과 같이 혹평하였다. 「교황 레오10세는 게으르기가 페르시아의 고양이와 같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의 장기는 교황청의 재산을 축재, 전쟁, 노름(도박) 그리고 사냥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였다. 교제상산에 가서 사냥을 빠뜨린 적은 거의 없다. 그가 신은 긴 장화(구두) 때문에 그의 발등에 입맞추는 신도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리고 레오10세가 특별히 필요로 했던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시키는 일이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자금확보를 위해 독일의 유명한 은행가 푸거(Fugger)가문에서 자금을 꺾었으며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면죄부를 팔도록 위탁하였다.」<sup>39)</sup>

면죄부의 판매는 후기 중세 교회의 참회제도에 전반적으로 파고들었으며 13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면죄부의 시작은 루터의 시대보다 1천년 앞으로 거슬러 간다. 그것은 로마교회에 부과된 고해성사에 관하여 생겨난 일이다.

1096년 클레멘트 종교회의(the Synod of Clermont)에서 우르반 2세는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제한의 면죄를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면죄는 로마교회의 고정된 수입원이 되었다. 교황 클레멘트 VI세(1342-1352)는 교회는 공적의 창고를 조절하여 어떤 사람의 남아있는 공적을 다른 신자에게 줄 수 있다는 교리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476년에 교황 식스투스 IV는 면죄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sup>40)</sup>

이것은 사면의 수여나 판매와 관련해서 남용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성직자와 평신도 가운데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관습을 비판하였다. 선동자들이 유가족들의(연옥에 가있는 죽은자의 유가족)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무자비하게 이용하였다. 수많은 인류가 그들의 유가족들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돈을 낼 때까지 연

37) J. 마르크스, 가톨릭교회사, 김창수 편역, (서울:가톨릭출판사, 1981), P.318

38) Ibid., P.320.

39) R. 베인톤, 마틴루터의 생애, 이종태 역(서울:생명의말씀사, 1986), P.78

40) L. 베트너, P.364.

육의 불꽃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면죄부라는 주제로 트렌트회의 이래로 글을 써서 이 이론을 옹호하던 모든 대변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답은 죄책과 처벌은 교해성사와 관계가 있으며 면죄부는 연육의 고통이라는 지칭 아래 포함되는 일시적인 처벌과 관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 전혜는 중세 교회에서 뛰어난 권위자들이 일찍이 확인했던 주장이었다. 이러한 이론은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면죄부 이론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으며, 면죄부의 주된 사용은 연육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만으로는 질문을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다.<sup>41)</sup>

일반 보통사람들은 교황청에 표값을 지불하고 구매하기만 하면 족했으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법으로 선행이라고 규정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자신의 처벌이 사면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면죄부는 신학적인 이론에서 보다는 실천적인 도덕적 효과에서 M. 루터로 하여금 항거하고 나서게 하였다.<sup>42)</sup>

#### 4. 95개조 논제

##### (1) 95개조 논제 발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Wittenberg 성교회 문에다 95개조 논제를 내걸었다. 이것은 1천2백년동안 내려온 로마교회에 대한 개혁의 포성이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세력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미친 때이므로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교황의 세도는 종교 생활에만 이 아니라 세속세계에까지 미쳐서 그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종교 분재야말로 백성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루터는 이러한 시대에 면죄증 판매의 그릇된 점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점을 95개조 논제에 담아 발표하였다.

지원용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95개조 논제는 ①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아니오'를 말하였다는 점이 위대한 것이다. 세상의 황제나 왕이나 또한 어떤 강한 세력도 감히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위엄이 높

41) T. M. 린제이, 종교개혁사,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0), P.236.

42) Ibid., P.239.

있던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을 들어 '아니오'를 외친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예언자적 사명과 그의 용기의 발로라고 지적한다. ② 이 95개조 논제의 교훈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금전으로 좌우되거나 매매될 수 없다는 점이다. 면죄부를 돈으로 계산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43)

보스턴대학 신과대학 교수인 C. 린드버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당시 시대상으로 극히 교황권이 남용되고 있을 때 루터는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였다. 이 논제에서 루터는 참회에 대한 보속행위로서 교회가 부과한 일시적 형벌을 교회가 면제해줄 수 있다는 면죄교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루터가 공격한 것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테첼의 행위에서 드러난 면죄의 남용이었다. 그의 95개조 논제는 다만 학자들 끼리의 논쟁을 위한 전형적이고 학문적인 발제였다. 44)

J. M. 타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분개하였으며 고뇌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Wittenberg 성직자들과 학생들과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95개조 논제를 작성하였다. 그것은 간결하고 우둔했으며, 직설적인 문체였고, 신학적인 것이었으며, 또는 로마교회의 교리의 실제적인 것들이었으며, 교황청 당국에 대하여 충고적인 글이었다. 그 첫 함성은 이러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침은 놀라운 개혁의 소리였다. 이것은 고해성사가 신자가 회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제의 도움으로 고백과 속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고해성사를 해도 아직도 인간의 속에는 회개할 것이 남아있고, 인간은 아직도 죄인이다. 고해성사는 의견상의 회개일 뿐이다」 45)

김주영은 연세신학논단에서 「진리를 해명할 의욕과 목적으로써 Wittenberg 대학에서 본 대학의 문학사 신학사이며 동대학 정교수인 성Augustine 수도원의 수도사, Martin Luther의 주재하에 다음의 제명제에 관하여 논쟁을 개시한다. 고로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각기의 장소에서 서장을 가지고 변론하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men.」 46)

43)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쉐넬디아사, 1983), P.175.

44) C. 린드버그, 말틴루터, 이현주 역, (서울: 쉐넬디아사, 1990), P.46.

45) John M. Todd, Luther A life, (NewYork: Crossroad, 1982), PP.102-103.

46) 김주영, "Luther의 95개조" 「신학논단」 1953. 7. 1, 2집, P.77, 이 글은 C. M. 야콥스의 95개조 논제 서두에도 실려있다. C. M. Jacobs, Luther's Ninety-Five

지원용 박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논제로 하여금 그와 같은 큰 동요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그 논제를 공개한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막이 열린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 요점은 세 가지 이다. 즉 ① 모금목적에 대한 이의, ②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부정, ③ 죄인의 행복에 대한 고려 등이다. ……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성 베드로 성당에 출석할 수 없다. 우리 교구의 여러 교회가 강탈을 당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교황은 교회에 면죄증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한 교회에 한 명의 훌륭한 목자를 임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행일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그 돈을 면죄증으로 착취를 당하는 빈민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행이 될 것이다.」<sup>47)</sup>

R. 스토페르는 그의 저서에서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것을 상기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곧 면죄부가 신자의 영혼 구원과 그 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다. 95개조 논제는 평신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여러 번 인쇄되어 노점상들을 통해 대단한 성공을 가져왔다. 이 논제들이 여기 저기서 교회의 실천에 던진 비판을 상식적인 것들이었다. 로마의 재정을 위해 민중신앙을 이용해 착취했던 방법에 분개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95개조 논제는 일종의 해방선언문과도 같았다.」<sup>48)</sup>

홍치모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발표되자 불과 2주 사이에 전 독일이 떠들썩하게 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의 후원이 컸기 때문이었다. 인문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도시의 인쇄업자들이 인문주의자들의 청탁을 받고 그것을 인쇄하여 독일 각지방에 발송했던 것이다. …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게시하였을 때 독일의 인문주의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루터의 결단을 찬양하고 성원했다. … 이것은 스킨라철학에 대해서 루터와 인문주의자들이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과 보조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9)</sup>

*Theses. 1957. P.7.*

47) 지원용, 말틴루터, (서울: 진콜디아사, 1994), PP.79-80.

48) R. 스토페르, 종교개혁, (*La Réforme. 1517-1564*), 박전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P.18-19.

49) 홍치모, 북구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울: 성광문화사, 1984), PP.104-105.



M. 린하드는 95개조 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재 수립한 기점이 되었다. 특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하였다. 그리고 크리스찬 생활의 주님과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는 일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루터의 95개조의 논제에서 종교개혁 사상의 4가지 관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보증의 근거가 된다. 논제 33: 교황의 사면을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We must especially beware of those who say that these pardons from the Pope are that inestimable gift of God by which man is reconciled to God). 논제 68: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Yet they are in no degree to be compared with the grace of God and the piety of the Cross). 논제 76: 그와 반대로 교황의 면죄증이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책에 관하여서는 없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장한다. (We affirm on the contrary, that opal indulgences cannot take away even the least of venial sins as regards its guilt). ② 그리스도, 교회, 말씀은 일치하는 것이다. 논제 6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그 '장보'(treasure)라고 우리가 말해도 합당할 것이다. (We are not speaking rashly when we say that the keys of the Church, bestowed through the merits of Christ, are that treasure). ③ 그리스도를 향한 신자들의 일념은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논제 37: 참다운 크리스찬은 죽은자나 산자나 면죄증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Every true Christian, whether living or dead, has a share in all the benefits of Christ and of the Church, given him by God, even without letters of indulgence). ④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을 발견할 수 있다. 논제 21: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Thus those preaches of indulgences are in error who say that by the indulgences of the Pope a man is loosed and saved from all punishment). 논제 79: 교황은 팔로 장식된 십자가 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To say that the cross set up among the insignia of the

papal arms is of equal power with the Cross of Christ is blasphemy).<sup>50)</sup>

T. M. 린제이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95개조 논제는 면죄부와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서 6개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① 면죄부는 단순한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 사면하며 사면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부과한 것만 사면할 수 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 ②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은 자신의 수중에 보전하셨다. ③ 면죄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그 사면권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다. ④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적용된다 사망이 그러한 처벌을 취소시킨다.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 에 의할 뿐이지, 자신의 관할권이나 열쇠의 권한(the power of the key)에 의해서 자신의 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전혀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참된 회개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요구하신다. ⑥ 공로의 보화는 옮겨 규정된 일이 없으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며 사람들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공로의 보화란 그리스도나 성인들의 공로들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나 성인들의 공로란 교황의 중재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이다.」<sup>51)</sup>

이상과 같이 95개조 논제에 대한 견해는 결국 면죄부의 부당성과 교황권 남용에 대한 항거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원죄의 면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할 뿐이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인간의 원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으며 교회가 부과한 행정적 권한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95개조 논제에 대한 반응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제시할 때 그의 생각은 이것을 일반에게 널리 퍼지게 하거나 혹은 어떤 혁명을 일으킬 의도에서가 아니었고 주로 대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토

50) Marc Lienhard, *Luther: Witness To Jesus Christ*.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PP.93-100 참조.

51) T. M. 린제이, *종교개혁사(I)*, 이형기·차중순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P.240.

론을 목적으로 한 신학적이고 아카데미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범한 생각이 전에 없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불과 2주내에 전 독일에 퍼지고 일 개월 이내에 전 유럽에 맹화처럼 전파되었다. 그런데 당시 교황 레오 X세는 루터를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으며 술 주정꾼 정도로 취급하였다. 「루터는 술취한 독일 사람이다. 술이 깬 다음에는 다시 생각하겠지, 승려 말틴은 명철한 녀석이야. 그러므로 다른 신부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짓을 하였겠지」<sup>52)</sup> 이렇게 과소평가하였다. 그것은 교황의 실수였다. 그러나 결국 루터는 1521년 1월 3일 Leo X세의 칙령에 의하여 파문(Decet Romanum Pontificem)당했다.

루터의 친구 요한 코클라우스(1479-1552)는 루터를 비난하였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사악한 탐욕, 주관주의 야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사탄이 루터를 창조했다고 하였다.<sup>53)</sup>

또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이 작성되었다. 이 신앙고백은 루터의 친구이며 평신도인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이 작성하였다. 「우리네 목사와 설교자들의 가르침과 우리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가르침과 신앙이 거룩한 성경에 바탕을 두고 우리 영토, 공국(公國), 자치령, 도시, 영지(領地)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교되고 가르쳐지며 소통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밝혀야 하며,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 교회가 있을 것이며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배웠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며 거룩한 성례전이 복음에 낮추어 집전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참된 일치성은 모자람이 없는 것이므로 복음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이해와 더불어 한결같이 선포되며 모든 성례전은 거룩한 말씀에 따라 집전된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하여 사람들의 의식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지켜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sup>54)</sup>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통일하여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사람들은 1530년 6월 25일 본 고백서가 의회에서 낭독된 날을 신성 로마제국의 사망일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1545년 이후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쪽 독일 영토 트렌트(Trent)에서 공의회가 열렸다. (실제는 3회에 걸쳐 열렸다) 이는 루터가 요구한 회의이기도 하였다. '자유

52) 지원용, 말틴루터, (서울: 킨콜디아사, 1994), P.90.

53) C. 린드버그, 말틴루터, 이현주 역, (서울: 킨콜디아사, 1990), P.89.

54) Ibid., P.92.

로운 그리스도교 공의회'를 의미하였다. 공의회에서 다룬 안건은 이단과 개혁에 관한 것이었고 공의회는 이 문제를 동시에 토론하기로 하였다. 공의회는 루터를 합법적, 공식적으로는 비난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성서로만'에 반대하여 공의회는 '성서와 전통'을 그리스도교 진리의 두 근원으로 내세웠다. 이 결정의 결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육당국인 마기스테리움(Magisterium)이 전통을 해설함으로써 따라서 성경을 해설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로 나타났다. 이 결정은 성경의 오래된 라틴어 번역판인 불가타(Vulgata) 성경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삼은 포고령으로 보완되었다. 또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은총으로'에 대응하여 공의회는 은총에 대한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이 세례와 성만찬을 교회의 성사로 강조한데 대응하여 공의회는 7성사를 확립하였다.<sup>55)</sup>

이 트레نت 공의회 결정은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교리를 갈라놓은 것이며 따라서 두 교회는 각각 제 갈 길을 가게된 것이다.

### (3) 95개조 논제의 해석

루터는 결국 95개조 논제가 이단으로 판명 받고 Worms 회의에서 재판을 받게되었다. 1521년 4월 18일 국회에 나타난 루터는 비록 야위었으나 전날과는 달리 빛나는 안광에 대담한 자세로 서서 제2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성서로서나 그 밖의 명백한 논거에 의해 반박되고 설복되지 않는 한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결의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잘못이 있고 또 서로 모순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매여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거역되는 행동은 괴로운 것이고 부당하며 위험한 것이므로 나의 주장은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취소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여기 서있습니다. 아-멘」<sup>56)</sup>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양심의 소리였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 외친 개혁의 천둥소리였다.

루터가 로마서 1:17에 의하여 의개념을 확고히 하였으며 신앙고백의 주초를 이루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자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의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에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의로 나

55) Ibid., PP.95-96. 七聖事 :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56) H. Lilje, *Luther and the Reformation*, trans Martin O. Dietrich (phil. : Fortress press, 1967), P.146.

타난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 의는 능동적으로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고 피동적인 의. 곧 복음에 나타난 의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무서운 하나님이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그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sup>57)</sup>

루터가 깨달은 의인관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진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드디어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린 것이다.

루터가 깨달은 '이신득의(以信得義)' 사상에 비추어 면죄부를 연구하였다. 그것은 사죄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나쁜 것인가? 판매행위가 나쁜 것인가? 돈 받고 죄를 사죄할 수 있는가? 따라서 루터는 이 면죄부가 외적으로 허가될 뿐만 아니라 참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가 깨달은 복음적 진리를 밝히겠다는 뜻에서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Ninety-Five theses)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첫째 이 논제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에 관한 논제들이었다.

논제 1에서, 「우리들의 주와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지상에 있는 신자의 전 생애가 끊임없는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태 4:17).<sup>58)</sup> 이 회개는 교황이나 사제나 어느 인간에게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고백은 일시적인 몇 번의 횃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뜻이다. 논제 36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 죄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만 한다면 속죄장 없이도 형벌과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 것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면죄부 판매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논제 37조에서 「참다운 크리스찬은 죽은자나 산 자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생활은 개인의 자유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면죄부를 통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죽은자에 관한 것은 연옥의 고통을 말함인데 루터는 연옥을

57) G. Rupp. *The Righteousness of God: Luther Studie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53). PP.33-35 참조.

58) J. M. Todd. *Luther a life*. P.102 참조.

M. Lienhard. *Luther: Witness To Jesus Christ*. P.94 참조.

인정하지 않았다. 연옥이 있다해도 그곳은 죽음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논제 52조에서 「만일 가치가 적은 면죄부가 하나의 종(bell)과 의식(procession), 축제(ceremony)로서 축하하게 된다면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복음은 백개의 종과 백개의 의식과 백개의 축제로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교황의 뜻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금의 양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황이 면죄부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은혜의 분량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다.

끝으로 62조에 「교회의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이다」 교황은 연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에 보화(돈)를 더 많이 쌓아두라고 강조하였다. 보화가 많아야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고통을 덜 받는다. 루터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보화는 오직 성경말씀, 곧 복음에만 있는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복음에 있는 것이지 교황권이나 면죄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둘째 교황의 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교황이 연옥의 형벌을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논박하였다.

논제 5에서 「교황은 그의 직권에 따라서나 교회의 칙령에 따라서 부과하는 징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다」 루터는 여기서 단호히 거부했다. 교황이나 교회법은 결국 인간능력의 한계 내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직권이기에 인간의 원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은 논제 6에서 더욱 명백해 진다.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또는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떠한 죄든지 사할 수 없다」

논제 20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의 완전 사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황 자신이 부과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다」 행정적인 권한을 말한 것이다. 교황은 죄인을 위해서 대리자로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이다. 논제 8, 13조 「그러므로 교회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해있는 사람에게에는 필요가 없다. 죽은자는 그의 죽음으로써 모든 교회법에서 해방되며 자유롭게 된다」 이 조항은 교황이 연옥까지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지상에서 산 자는 지상에서 모든 의무와 권한이 끝나는 것이다.

1476년 교황 식스토스4세가 이미 죽은자들을 위해서 면죄부까지 만들었다. 루터는 이 주장을 강력히 부정하였다.<sup>59)</sup>

비트너는 그의 저서에서 「연옥교리는 소위 거대한 사기극이고 엄청난 공갈이다. 왜

59) L. 비트너,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이승훈 역, P.308.

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돈을 빼앗기고 부자들은 헛되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강탈 당하는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부자들은 서로 앞다퉈 그들의 토지를 교회에 기증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적은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결국 교회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부유한 토지 소유주가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교회는 그 나라 땅의 반과 모든 발행된 돈의 1/3을 차지하였다. 교회는 거대한 대성당과 주교관을 지었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두막 집에서 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오늘날도 유럽이나 멕시코에서 무지와 비참속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오두막 집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대성당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60)</sup>

논제 22 「교황의 권한도 이 세상에서 행사되는 것이지 연옥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징벌도 사할 수 없다」

논제 30 「사람이 자기의 참회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데 하물며 그가 죄를 완전히 사면 받았는지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이 지적인 연옥 자체를 무시했다고 본다.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의 고통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연옥의 고통을 사제가 감면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제여, 당신은 주어진 사례에서, 그만 기도하고, 교구 사람들로부터 돈 받을 때를 어떻게 아느냐? 당신은 존 머피가 연옥에서 나온 때를 어떻게 아느냐? 그가 나온 것은 유족에 의해 지불된 미사를 드림에 달려있다. 당신이 한 두 미사를 너무 빨리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당신의 그 사람이 연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면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이처럼 빠르든, 느든 잘못된 것이다. 로마 카톨릭 사제 여러분께 내가 진심으로 물겠는데, 당신들이 그 개인을 위해서 미사를 멈출 때를 어떻게 아느냐? 당신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sup>61)</sup>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이 케치암(R. Ketcham)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논제 26 「그러므로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격(格)으로가 아니라 오직 죽은자의 영혼들을 위해 대신 기도함으로 그들의 사죄를 보증해 주는 일은 좋은 것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18-19에 있는 말씀, 「반석(베드로)위에다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한 말씀과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겠다」고 한 말씀을 해석한 조항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메시아(Messiah)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전도자, 제자의 직분을 준다는 뜻이다. 전도자, 제자들은 지상에 예수의

60) Ibid., P.310. 이 인용은 스티븐 엘테스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61) Ibid., P.310. 로버트 케치암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Let Rome speak for Herself」

교회를 세우고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런고로 루터는 교황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좋은 것이고 교황의 권한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직자의 대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전연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면죄부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황과 일부 주교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실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루터는 주장하였다.

논제 27 「연보케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They preach human doctrine who say that the soul flies out of purgatory as soon as the money thrown into the chest rattles)」

논제 28 「돈이 연보케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동시에 성직자의 대리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는 것이다(It is certain that when the money rattles in the chest, avarice and gain may be increased, but the suffrage of Church depends on the will of God alone)」 사죄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돈은 누구에게도 이득과 탐욕을 낳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하물며 교황권과 교회의 권위로 면죄부를 매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62)</sup>

타드는 그의 저서에서 테첼(Tetzel)이 면죄부를 매매할 때 연설한 말을 비판하고 있다.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일년 내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연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면죄부를 사서 자기와 자기 친지의 고통을 줄이기 바랍니다.」<sup>63)</sup>

논제 53 「면죄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교회마다 면죄부 사라지는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사나 고해성사보다 헌금을 바치라는 소리가 더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미사를 드리지 않고 면죄부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더 신자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이다. 면죄부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교회와 성직자와 평신도가 그들의 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제 62조 「교회의 참 보배는 면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주신 복음

62) J. M. Todd, *Luther a life*, P.99 참조.

63) Ibid., P.99. T. M. 린제이, 이형기 외 역, PP.226-227 참조.



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면죄부를 비싼 돈으로 사면 그것이 교회의 보화(The treasure of the Church)가 된다고 가르치며 면죄부를 고가에 강매하였다.

공로의 보화(The treasure of the merit)라는 개념은 알렉산더가 먼저 13세기에 형성한 것으로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계승시켜서 더욱 확대시키고 정밀하게 발전 시켰다. 교회 내에서 존속하는 관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교행은 대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신자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생각을 한 데 묶어서 교인 각자의 선행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재산이므로 죄가 더 많은 사람이라도 보다 더 성스럽게 사는 형제의 선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죄를 씻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신학자들은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하늘에 있는 성인의, 그리고 메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선행이 담겨져 있는 보화의 창고가 있다는 이론을 점진적으로 확립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쌓인 모든 공로들이 교황의 수중에 놓여 있으므로 교황이 신자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64)</sup> 이것을 루터는 지적한 것이다.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의 재산을 만드는 것이 공로의 보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제 72, 74 「그러므로 면죄부를 팔려고 설교하는 자에게 대항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면죄부의 판매를 방해하는 자에게 대해서 보다는 그것을 구실 삼아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방해하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교황은 더 격분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논제 86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 지적 하나만으로도 루터는 화형에 처해질 만큼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교황이 재물에 젖어서 교황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황이 사냥을 하고, 도박을 즐기고 토건업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교황으로서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다.

요한 12세(956-964)라는 이름을 가진 18세의 교황은 철저하게도 부도덕한 인물이었다. 그의 포악과 방탕함은 로마인들의 불평을 사서 Otho황제가 그를 폐위시켰다. 고소장에 열거된 죄중에, 살인, 위증, 신성모독, 간음, 근친상간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로부터 오늘날의 교황에 이르는 사도적 권위의 끈을 이어준 합법적인 교황으로 간주되고 있다.<sup>65)</sup>

64) T. M. 린제이, 종교개혁사(1), 이형기 외 역, P.231-232 참조

65) Ibid., P.345 "교황의 무오성"

이상의 95개조 논제의 뜻은 면죄부의 효력에 대하여 논박한 것이다. 즉 면죄부는 신성한 교회가 돈을 벌어 들일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 효력은 무효이며 교회를 타락시킨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와 연옥의 고통을 면제해 준다는 교황권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중세 로마 교회가 교황의 직권 남용으로 교회의 부과된 본질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물질에 빠져 교회를 타락시켰으며 결국 루터의 95개조 논제에 의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된 것이다.

### Ⅲ. 결 론

1517년 M.루터는 95개조 논제를 작성하여 Wittenberg 성교회 정문에 게시하게 되었다. 이는 면죄부의 부당성과 교황의 처사에 대하여 논의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의 파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다.

트렌트 공의회(1545-1563)전까지는 면죄부에 관한 교리는 불확실하였다. 트렌트 공의회는 교리를 확정하고 면죄부 남용을 금지하였다.

면죄부란 죄를 지은 대가로 세속적인 형벌을 받는 것중의 일부를 돈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고해성사의 일부인 실질적인 속죄를 말하는 것이었다. 면죄부는 교황의 권한으로 허락된 것이고 공인 기관을 통해 발행되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면죄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사고 판다는 식의 내용을 의미한 적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또한 참회하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것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황 Sixtus 4세(1476년)가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선언한데서 면죄부는 돈을 거두어 들이는 관례가 됐으며 남용이 됐다. 이것은 교황 Sixtus 4세의 실책이었다. 그리고 교황 Leo 10세(1515년)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였다. 이것도 교황의 실책이었다.

루터는 95개조 논제에서 교황의 대권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황의 정책을 비난했을 뿐이다. 그리고 연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루터의 의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적이며 영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가

난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진 돈이 로마에 있는 부유한 교황청에 보내어진다는 것을 공격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전 독일 국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95개조 논제의 주장은 3가지였다. ① 회개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36조 「모든 기독교인은 자기 죄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만 한다면 속죄장(면죄부)없이도 형벌과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람을 받는다」 ② 교황의 권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교황이 연옥의 형벌을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논박하였다. 6조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포 또는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떠한 죄든지 사할 수 없다」 ③ 면죄부가 회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황과 일부 주교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2조 「교회의 참 보배는 면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것이다」

루터의 95개조 논제 발표이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 교회는 개혁돼 가고 있다. 1545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천주 교회는 개혁을 결의하였고, 그 이후 300년 후인 1869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려 로마 교회를 개혁하였다. 교황 비오 9세가 소집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그동안 매우 발전한 유럽 근대 문화와 사상에 대해 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극단적인 합리주의를 시대의 오류임으로 이를 배척한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현대 세계 교회, 신의 계시, 교회, 전례 등 4가지 현장을 제정한다. 에큐메니즘 등에 관한 9가지 교령을 제정한다. 신앙의 자유 등에 관한 3가지 선언을 작성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전쟁과 평화, 부와 빈곤 등의 문제를 교회도 자신의 문제로 할 것과 타 종교, 종파, 사상에 배타적이지 않을 것 등을 결의하였다. 현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 도처에서 이 공의회를 방향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968년 M. 루터 종교개혁 450주년 기념 논문(「신학논단」, 1968, 연세대학 신과대학) 중에서 김정준 박사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외쳤다. 그 첫째가 교역자의 자질문제였다. 교역자의 자격, 인격, 지도력, 지식 등이 모자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앙 형태로서 타계주의, 기복주의, 열광주의, 교권주의, 교파주의, 율법주의, 지방색 파벌주의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무인가 신학교에서 대량 생산해 내는 교역자의 질이 떨어진다고 통탄했다.

선교 110년을 맞는 한국 교회는 진정코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회 교세(1990년 기독교연감, NCC편)는 교회 수는 3만5천3백55처이고, 교인 수는 1천3백

30만명이다. 교파는 예수교장로회가 58개교단이 있고 기장 1, 감리교 2, 침례교 5, 오순절 8, 구제군 1, 복음 교회 1, 루터 교회 1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예장은 같은 교리를 뿌리로 하면서 교단이 58개로 나누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속히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신학교 수가 너무 많다. 한국신학교육기관 자료집(전국신학대학협의회, 1995)에 보면 29개 대학이 있다. 학부 모집 정원 총수는 4천7백62명이다. 이는 1년에 정규신학대학 졸업생이 4천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가 신학교가 150여처가 되는데 한 학교에서 50명씩 배출한다면 1년에 7천5백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 합치면 1년에 신학교 졸업생이 1만명이 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목사안수 정규과정도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목사안수를 받고 2층 집에 세를 얻어 개척 교회를 시작하니 신도시는 온통 십자가가 세워진 십자가촌이 되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죄과가 아닐 수 없다.

무인가 신학교는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규 신학대학도 29개나 되니 인구비례로 많은 것이다. 무인가 신학교에서 해마다 수 천장씩 발행하는 그 졸업장이 현대 한국적 면죄부가 아니겠는가? 이제 더이상 한국적 면죄부는 제작해서도 안되며 판매해서도 안된다.

두레마을 대표이며 활빈교회 목사인 김진홍 씨는 한국 교회의 병폐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앙일보』, 1995. 9. 16. P.10)

① 병 고치고 복 비는 무속화 ② 덩치 커지는 것만 좋아하는 물량화 이것은 종교 비즈니스이다 ③ 목사에게 무조건 바쳐라. 이것은 교인 우민화 ④ 귀족화 및 사치화 등이다.

지난 8월 27일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3만명 세계 감리교인이 모여 '95세계감리교서울회년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① 우리는 21세기를 향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신앙에 의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갱신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저해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요소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선교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과감히 극복할 것이다. ② 우리는 복음선포와 함께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가난한 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불우 청소년,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봉사 활동을 펴나갈 것이다. ③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

일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따라서 민족의 분단이 동족간의 증오와 대결로 나타났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교회가 협력하여 나눔과 섬김의 신앙 생활을 전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형제 교회 및 단체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선교 110주년을 맞는 감리교회의 교회 개혁의 외침이었다.

고영근 목사는 그의 저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선교적 과제」(서울:혜선출판사, 1991)에서 53개 개혁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개척 교회 난립을 막자, 무인가 신학교 그만하자, 교회 재정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내의 물량주의를 배격하자 등이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 47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본논문이 한국교회 갱신에 조금이나마 공헌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기독교문사, 1983.
2. 기독교연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91.
3. 고영근: 한국교회 갱신과 선교적 과제, 서울:한국목민선교회, 1991.
4. 김명혁: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지남 제44권, 1977. 1.
5. 교회와 사회,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6.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성광문화사, 1980.
7. 김주영: "Luther의 95개조" 신학논단, 연세대신과대학, 1953.
8. 박정진: "루터의 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상 제 305호, 1983. 11.
9. 배한국: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컨콜디아사, 1983.
10. 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동서문화사, 1992.
11. 송낙원: 세계기독교회사, 서울:기독교문화사, 1959.
12. 신·구약성서

13.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14. 지원상: M. 루터, 서울 : 유풍출판사, 1980.
15.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17. 지원용: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 컨콜디아사, 1986.
18. 지원용: 루터의 종교개혁사, 서울 : 컨콜디아사, 1958.
19. 한기연: 교육사, 서울 : 법문사, 1983.
20. 홍치모: 북구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울 : 성광문화사, 1984.
21.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22. 길트너, H.: "루터와 농민전쟁", 지원용편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 컨콜디아사, 1986.
23. 루터, M.: 독일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지원용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24. 린제이, T. M.: 종교개혁사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이형기 외 1 저,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0.
25. 린드버그, C.: 말틴루터 (*Martin Luther*), 이현주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90.
26. 메인튼, R.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이종택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27. 비트너, L.: 토마 카톨릭 사상평가 (*Roman Catholicism*), 이송훈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28. 스피츠, L. W.: 종교개혁사 (*The Reformation*), 서영일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9. 앳손, P. S.: (*An interpretation of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장식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3.
30. 스토페르, R.: 종교개혁, (*La Réforme, 1517-1564*), 이건택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31. 캐논, W. R.: 중세교회사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 서성일역, 서울 :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3.
32. Bainton, R. H.: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London : Lowe & Brydone, 1969.
33. \_\_\_\_\_: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 Y. : New America Library, 1969.

34. Boehmer, H.: *Road to Reformation*, tran, J. W. Doberstein, Phil. : Mullenberg Press, 1946.
35. Dunstan, J. L.: *Protestantism*, New York : Washington Square Press., 1961.
36. DyKe, V.: *The Age of the Renaissance*, Edinburgh : 1897.
37. Edwards, M. & Tavard, G.: *A Reformer for the Church*,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3.
38. Green, V. H. H.: *Luther and Reformation*, London : Batsford Ltd., 1964.
39. Grim, H. J.: *The Reformation Era*,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40. Harbison, E. H.: *The Age of Reformation*, Philadelphia : Cornell, U. P., 1959.
41. Headley, J. M.: *Luther's View of Church History*, Newheaven & London : Yale Univ. Press., 1963.
42. Huizinga, J.: *Erasmus and the age of The Reformation*, New Tork : Harper Torch Book, 1957.
43. Jacobs, C. M.: *Luther's Ninety-five Thesi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57.
44. Lazareth, W. H.: *Luther on the Christian Home*, Phil. : Muhlenberg Press, 1960.
45. Lienhard, M.: *Luther: Witness to Jesus Christ (Luther: Temoin de Jesus Christ)*, tr., E. H. Robertson, Minneapolis :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0.
46. Lilje, H.: *Luthe and the Reformation*, tran, Martin O. D., Phila : Fortress Press, 1967.
47. Lucas, H. S.: *The Renaissance and the Reformation*, New York : Harper Brothers publishers, 1934.
48. Luther, M.: "The Freedom of a Christian".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 Menschen*), ed., H. J. Grimm, tr., W. A. Lambert, *Three Treatis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8, pp. 261-316.

49. Luther, M.: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antion. von das christichen Standes Besserung). 1520. Ibid., ed., J. Atkinson, tr., C. M. Jacobs. pp. 1-112.
50. Luther, M.: *Luther's Ninety-Five Theses (Anschlag der 95 Thesen)*. 1517. tr., C. M. Jacob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7.
51. McGrath, A. E.: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New York: Basil Blackewll ltd. 1985.
53. Ruff, G.: *Luther's progress to the diet Worms*, New York: Harper & Row, 1964.
54. Schaff, 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Chales Scriener's Sons, 1910.
55. Schwiebert, E. G.: *Luther and His time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0.